◉ 濟州島硏究, 제 5 집, 1988. ◉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李 文 雄*

머 릿 말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 출신 교민들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의 현상을 파악하고, 양자간의 관련성, 특히 의례생활이 사회조직의 유지,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주도 출신 교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오오사까의 이꾸노지역(大阪市 生野區)의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본인이1988년 1년간 이 지역에서 실시한 "재일한국인의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를 위한 인류학적인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잠정적인 중간보고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의 약 70만에 달하는 교민사회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을 다룬 것으로 결코 재일한국인 사회를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어야겠다.

이꾸노의 제주인 사회

사실 이꾸노는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두드러진 곳이다. 여기에는 인구 구

*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본 논문은 필자가 1988年 1년간 "문교부 해외파견연구 교수" 계획에 의하여 일본 오오사까에서 실시한 인류학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가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日本國立民族學博物館과 이꾸노의 교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성에 있어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약 2/3가 제주도 출신이어서 제주도의 문화요소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오오사까부(大阪府)에는 재일한국인 총수의 28%에 해당하는 19만명의 교민이 살고 있어서 일본에서 가장 많은 교민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더해서 이웃하고 있는 효고현(兵庫縣)과 교또부(京都府)를 합치면 재일한국인의 무려 46%가 오오사까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에 살고 있는 셈이다.

다시 오오사까의 교민만을 따진다면, 시의 중심부를 싸고도는 〈JR 환상선〉 동쪽 외곽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죠도구(5,203명), 히가시나리구(10,25명), 이꾸노구(38,456명), 그리고 히라노구(6,995명) 등 4개 구에 약 7만명이살고 있어서, 재일한국인 총수의 10%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이중에서도 오오사까시의 전체 교민의 34.9%가 살고 있는 이꾸노에는 제주도 출신이 가장 많다. 1985년 〈재류외국인통계〉(법무성편)를 보면, 오오사까부의 19만명의 교민 중 제주도 출신이 72,560명(38.2%)으로 나타나 있다.

오오사까에 제주도 출신이 많은 현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제시대 초기인 1923년에 이미 서귀포와 오오사까를 연결하는 직통 연락선이 생겼고, 서귀포에서 돈벌이를 위해 배를 탄 제주 사람들이 발을 디디는 제주 밖의 첫 도시가 오오사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주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다. 또한 당시에 오오사까시의 외곽에 벌어진 각종 토목공사, 특히 현재의 이꾸노를 가로지르고 있는 히라노가와(平野川) 운하를 건설하는 토목공사에 많은 한국인 인부가 투입되었고, 이 지역의 밥집을 중심으로 바락크를 짓고 기거했던 것이 이 지역의 한인 사회의 모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다른 지역의 교민사회와는 다르게 이꾸노의 제주도 출신의 교민사회는 역사가 길다. 이 지역에는 이미 50세 내지 60세 정도의 2세들도 많고, 지연단체인 제주도 마을단위 향우회의 역사가 이미 60년이 넘은 사례도 있다. (예컨데 법환리의 향우회인 〈建親會〉는 2년전에 이미 창립 60주년 기념회를

가진 바 있다.) 이런 현상은 이쿠노의 제주인 사회가 단지 해방 직전후나 최근에 형성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수세대에 걸친 문화적인 전승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제주인들의 의례생활

이쿠노에 제주도 출신이 많고, 거의 집단적으로 모여살기 때문에 고국의 지방문화는 항상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침서 또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중에서도 의례생활은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이를 재강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인들의 의례생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마도 조상제사의 분야일 것 같다. 이미 본국에서는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이곳의 제주인 사회에서는 상제에서도 "3년상"(三年喪)이, 기제사에도 고조부모까지의 "4대봉사"(四代奉祀)가 거의 그대로 남아 지켜지고 있다.

이쿠노의 제주인 사회의 형성이 이미 수세대를 넘었기 때문에 고조의 자손들이 같은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집안도 적지 않다. 기제사는 8촌까지의 범위라고 하지만 수가 적을 때는 8촌을 넘은 친척들도 제사에 참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친족원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6촌까지만을 찾아보는 집안도 있다.

제주출신 교민의 기제사는 한국의 다른 지역의 기제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식과는 제사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우선제사 그 자체도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라기 보다는 모든 자손들의 만남의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같은 조상의 자손임을 재확인하고 친친족계를 재강화하는 등의 친족유대를 다지는 중요한 메카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경상도, 충청도 등 한국의 다른 지방 출신 교민가족의 기제사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제사는 대체로 해당 조상의 부계자손들만의 의례행사이지만, 제주도 출

신 교민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상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부계가 주축이기는 하지만, 외손도, 사돈도, 심지어는 친지도 "제사를 먹으러 오는" 관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거주하는 곳이 외국이고, 이국생활의 외로움에서 어디라도 의지할만한 곳을 찾아 인간관계를 다져나가는 생활양식에서 굳어진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제사는 대체로 저녁 10시 이후에 치루어지지만, 참석자들은 저녁 일을 마치고는 6시경 이후로는 속속 모여들어 음식과 술 등으로 마치 잔치 기분을 자아낸다. 여기에는 엄숙한 분위기라기 보다는 친척과 친지들을 만나 "흉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으로 소란한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수많은 음식들이 마련되어야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의 부인들은 모두 이에 협력하게 됨으로 웬만한 기제사에도 모이는 인원은 수십명이 되고, 좀 큰 집안의 중요한 제사에는 백명을 넘는 손님이 모이기도 한다. 제사를 올리기 수시간 전부터 제상에 올리는 음식과는 별도로 마련된 음식으로 참석자들은 도착하는 데로 제상에 절을 드린 후로는(이때 대개 준비해온 부조금의 봉투를 제상 아래에 놓는다) 식사와 술을 들면서 이야기의 꽃을 피운다. 물론 기제사를 올린 후에 제사음식을 나누어먹는 "음복"의 과정이 있지만, 제사전에 일어나는 "친교의 시간"은 제주도 출신 교민의 기제사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것 같다.

이와 같이 기제사는 개개의 가족 레벨에서 행해지는 조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 또는 조상과의 만남이라기 보다는 친족간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재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속학의 분야에서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무속의 고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무속이 제주인의 생활양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의 생태학적인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천혜의 기후적인 조건이 지금은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바람, 태풍, 그리고 바다와 연결된 생활양식이라는 예기치 못할 생활상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생활의 지혜가 이런 무속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생태학적인 조건이 전혀 다른 일본에 와서도 제주인의 마음 속에 굳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속은 그대로 생활양식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오오사까에서 동쪽으로 나라(奈良)로 가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꼬마산(生駒山)과 시기산(信貴山) 기슭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조선절"(朝鮮寺)의 신자들은 그 대다수가 제주도 출신의 교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 지역의 조선절은 불교형식의 절이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이 무업(巫業)을 하고 있다. 이 절들에서는 굿들이 자주 벌어지고, 이를 주재하는 심방과 보살은 거의 대부분이 제주도 출신이다.

일본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불교적인 문화와 교민들의 토속적인 무속이 습합되면서 "조선절에서의 굿"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지역에서의 한국불교는 교민들의 무속적인 의식을 외면하고는 교민사회에 접근하고, 교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절충이 일어나고 있다.

그 한가지의 예가 절에서 이루어지는 "야꾸바라이"(厄拂い)라고불리우는 "액땜이" 의식이다. 이것은 음력 정월 보름경에 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각신도 가정에서는 티샤쓰, 와이샤쓰 등의 옷, 무명의 옷감, 종이돈, 실, 그리고 "고마끼"(護摩木) 등을 절에 가져와서 정성을 드리고 불에 태우는 의식이다. 고마끼는 가로 5cm, 세로 35cm 정도의 나무판으로 거기에는 식구들 각자의 주소, 성명을 써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옷과 옷감에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놓는다.

이것은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모든 묵은 액을 다 털어버리고, 불살라버림으로서 새로운 기분으로 한해를 시작하려는 것을 상징화한 "액땜이/액막이" 의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나가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 가족을 포함하여 가까운 친척의 몫까지도 대신해서 의식을 치루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런 의식을 거행할 날이 다가오면, 시간이 있는 사람은 직접 참여하지만, 바쁜 생활 중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친척에게 부탁하고, 또 스스로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못가는 사람은 돈만을 부치면 친척이 대신 고마끼 등의 제물을 마련해 이름과 주소를 써놓고 의식을 치루어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야꾸바라이"의 의식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본인의 가족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족원의 의식도 대신 치루어주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정월에 집에서 이루어지는 "안택제"(安宅祭)에서도 보살에 의해 "야꾸바라이"를 겸해서 의식을 치루기도 한다. 이것은 절에서 하는 집단적인 것과는 달리 개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혼해서 독립해 나간 자녀들의 이름을 써넣은 "고마끼"와 옷감, 옷 등을 상위에 올려놓고 제를 올린 후에 집앞에서 불살라 버리는 의식도 있다. 대체로 이것은 주부들의 관심이고, 결혼해나간 딸들도, 비록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아들 가족과 다름없이 "액땜이"를 치루어 주고 있다.

또한 절에서 불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생(放生)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도 참가하는 신도들은 자신의 가족원 뿐만 아니라 친척들을 대신해서 자라나 거북의 등에 그들의 이름을 써넣고 방생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야꾸바라이"에서와 꼭 같은 특성과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제주사람들의 사회구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자는 제주사람들이 "안"(우찌 : ウチ)과 "밖"(소또 : ソト)의 개념이 아주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것은 제주도의 문화에서 "안꺼리"와 "밖꺼리"가 구분되고 비교적 독자적인 생활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안〉과 〈밖〉은 분명히 차원을 달리하면서 〈안〉이 〈밖〉이 될 수도 있고, 〈밖〉이 〈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즉 때로는 안의 범위가 내 가족, 집안, 문중일 수도 있고, 넓게는 제주도 그 자체가 〈안〉이 되어 모든 제주사람들이 "우리 제주사람들"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안"의 개념이 강하다는 점은 제주도 출신 교민사회에서 다양

한 차원의 강도 높은 사회적인 유대감 또는 응집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이것은 이쿠노 지역에서와 같이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또한 집단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데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제주도 출신 교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혈연 및 지연조직이 많다. 친족회, 종친회 등은 물론이고, 같은 마을, 같은 면, 군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된 동향인의 조직들이 모두 이런 강력한 "우리 의식" 또는 "공동체 의식"을 말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조직 중에서 혈연관계에 의거한 부분에만 촛점을 맞추어 본다. 제주도인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성격으로서의 "안"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친족관계에 의거한 네트워크는 인간관계에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것 같다. 가족 및 친족간의 상부상조는 이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제주인은 제주인과 혼인하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집안의 대사가 있을 때 모이는 사람들은 거의가 제주도 출신이고, 사업상의 네트워크도 가능하면 제주 사람들간에 형성된다. 이런 현상들이 결국 더욱 강력한 "안"(우찌)을 만들어 주는 요인이 된다.

가족 및 친족관계에서는 이런 공동체의식이 더욱 강해서 한 사람의 출세는 집안과 문중의 자랑으로 간주되는 등 친족간의 유대가 다른 어느 지역 출신의 교민사회에서 보다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비록 부계친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자의 관찰로는 기혼의 딸은 혼전에 못지 않게 여전히 본가(친정)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혹시 제주도의 딸이 육지("바깥")의 다른 지방 출신의 남자와 결혼했을 때, "친정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것을 이유로 적지 않는 가정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예를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빈틈없는 시간생활의 연속이고 바쁘다. 가까이 살기는 하지만 서로 자주 만나기란 사실상 시간이 허락치 않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결혼식, 회갑, 장례식 등의 집안의 대사가 있는 경우에는 친척들이 모이지만, 이런 기회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집안의 기제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여기서는 가까운 친척이면 가족원 전부가, 약간 촌수가 먼 경우에는 가족의 대표가 조상의 넋을 기리는 의식에 참여한다. "조상의 제삿날에 그 제사상 앞에 가서 인사하지 않으면 친척들로부터 그 이튿날 아침에 욕을 먹게 된다"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관습은 교민사회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의례생활 과정에서 친척들은 정기적으로 같은 집안(집단/"우찌")의 일원임을 재확인 할뿐만 아니라, 친족관계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만 하겠다. 이 점은 무속적인 "야꾸바라이"(액땜이) 의식에서도, 불교 신도들의 방생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세이익"(現世利益)의 주술적인 의례행사도 행위자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꾸어 말한다면 교민들의 의례생활은 그 자체만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이국생활에서 혹시 끊어지거나 흐려질지도 모르는 친족관계의 고리를 강화시키고 친족원들은 한덩어리로 묶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통합 메카니즘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의례생활은 제주인을 제주인으로 남아있게 하는 효과적인 생존전략(survival strategy)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